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넷째 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4. 전능 왕 오셔서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드는 사람들처럼 사랑의 온기가 그리워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영혼의 창고는 텅 빈 것 같아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빈터에 포근한 은총의 햇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희망의 조짐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다고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표징이 되라고, 사람됨의 등불을 밝혀들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의혹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불살라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벤전2:25	인도자
----------------	--------------	-----

♠ 교 독 문	56. 대림절(2)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구성실 장로
------------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2:13-18	인도자
	II. 살전5:16-24	김종훈 집사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예수를 기뻐하라	김재흥 목사
	II.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	-----

헌신의 찬송	470. 내 평생에 가는 길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굳더더기를 제거하는 일에는 재빠르고, 좋은 것은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 기쁨과 소망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땅에 사랑과 감사의 씨를 심겠습니다.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곁에 조용히 머물면서 그들의 벗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2월 동호회 모임	에베소서 강해(29)/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한상익 장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박옥순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고광송 박혜경 노순옥 최영선
	헌금위원	한완식 김용진 김근종 김애경 구명자 백혜숙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마6:3)

자비심을 지닌다는 것은 행복과 성스러움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그 행복은 멈춰 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당신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경험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의해서 초래되는 흥분과 전율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에는 원인이 없다. 당신이 행복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진정한 행복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의식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며, 그러기에 무의식이다.

성스러움을 지니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당신이 성스러움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 성스러움은 시들어 버리고 독선에 빠지게 된다. 선행은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좋은 행위가 된다. 당신은 자신의 선함과 미덕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행하는 행동으로 훌륭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의 왼손은 오른손이 좋은 일을 하는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뿐이다. 당신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미덕은 미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교묘하게 연마하고 만들어 내고 억지로 강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라. 그것이 진정한 미덕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철저하게 즐기며 그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성스러움의 첫째 특성은 무의식이다.

둘째 특성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당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생각해보라. 노력은 당신의 입에다 음식을 넣어 줄 수는 있지만, 식욕까지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노력은 당신을 침대에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잠까지 자게 할 수는 없다. 노력은 당신으로 하여금 억지로 칭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인정하게 할 수는 없다. 노력은 일종의 봉사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나 성스러움을 만들어 낼 만한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당신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변화나 성장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다.

변화는 오직 깨달음과 이해만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의 불행을 이해하라, 그러면 불행은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행복해질 것이다. 당신의 자만심을 이해하라, 그러면 자만심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결과 겸손해질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녹아버릴 것이다. 그 결과는 사랑이다. 당신의 집착을 이해하라, 그러면 그 집착은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자유이다. 사랑과 자유와 행복은 당신이 연마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당신은 그것들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반대되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성스러움에 대한 셋째 특성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을 바라면 행복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항상 불만족 상태에 있을 것이고, 불만족과 걱정 때문에 당신이 얻고자 노력하는 바로 그 행복을 죽이게 된다. 스스로 성스러워지기를 바랄 때, 당신은 자신을 아주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 탐욕과 야망을 살찌운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곧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것이다. 하나는 자아의 교활함이다. 이 교활함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본래 되고자 하는 바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요하며, 그리하여 교활함 자체를 추켜세우고 영광스럽게 내세우도록 만든다. 다른 하나는 대자연의 지혜이다. 이 지혜 덕분에 당신은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형태, 방식, 속도, 시간 등 변화하는 것을 떠나서 실체와 대자연으로 가는 길뿐이다. 당신의 자아는 훌륭한 기술자이다. 그러나 창조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 자아는 방법과 기술을 지지하며, 이른바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엄격하고, 고집 세고, 기계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양산한다. 이 성스러운 사람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관대하지 못한 사람, 곧 성스럽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는 반대로 폭력적인 사람이다. 자신의 영적인 면을 의식하는, 이같은 유형의 '영적인' 사람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

(안소니 드 멜로, <<사랑에 이르는 길>> 중에서)

성탄기도

오 주여, 주의 길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그지없나이다. 주는 집을 멀리 떠나 태어난 조그맣고 힘없는 아기로 제게 오십니다. 주는 저를 위해 당신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십니다. 주는 저를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당신의 벗들에게 오해받으시고, 당신의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느낌 속에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와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주의 성탄을 경축하고자 준비 중인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평안을 맛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며, 끊임없이 엄습하는 소외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나이다. 그러면서도 제 애절한 고독감이 간간히 밀려드는 귀속감보다 저를 주님과 더 가까이 결합시켜주고 있는 것인지 미심쩍기만 합니다. 제가 주님의 성탄을 경축해야 할 자리는 어디이옵니까? 아늑한 가정입니까? 낯선 집입니까? 반가워하는 친구들 속입니까? 낯모르는 나그네들 사이입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자리입니까? 고독감에 젖는 자리입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 체험들로부터 멀리 달아나야 할 까닭은 없사옵나이다. 주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듯이 저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를 더욱 힘차게 끌어안고 주의 기쁨과 평화를 더욱더 온전하게 맛보곤 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제가 한없이 가난하다 느끼는 자리에 저와 함께 하소서. 이 자리가 주께서 당신의 구유를 발견하고 빛을 가져오실 자리라 굳게 믿나이다. 오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헨리 뉴엔 신부의 기도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래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이한림 김명희 고사일 최영선 정복순 이봉옥 박영숙 배삼순 박옥순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김훈동 박홍엽 강인식 김정숙 윤석철 장혜숙
 김재흥 최희영 오자영

월정헌금:

오현정 조항범 김승현 김수진 김명순 송남철 김홍기 김창원 정지은
 문복순 박준희 이기분 이정은 이갑재 김정섭 이경남 이희균 김영한
 이병철 김현진 권혁순 박혜경 배부례 박상규 임수연 임원민

감사헌금:

문금석 배삼순 최종원 정복순 하재두 장준호 백혜숙 박옥순 고재중
 정현창 이형석 문금석 가족 일동 무명2

생일감사헌금: 무명1 구도헌금: 정두리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삼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시간에는 금년도 마지막 동호회로 모입니다. 생태동호회는 영화반과 같이 합니다.
3. **아름다운원로모임** : 수요일(21일) 오전 10시 30분에 송년모임을 겸해 모입니다.
4. **성탄맞이** : 12월 24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성탄맞이 행사를 갖습니다. 즐거운 잔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성탄절 예배** :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과 함께 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날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10시 40분까지 오십시오. 이날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6. **성탄절 오후 행사** :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와 친교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25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식사 봉사를 위한 여러분의 많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7. **특별헌금** :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은 불우한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 :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9. **신앙실천** :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마련하고, 그것을 정성껏 전달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 헌화 : 김애경 권사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